

###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 선우재, ‘정책과 대화’ 제3차 포럼

# 김관영 도지사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가 주관하는 ‘정책과 대화’ 제3차 포럼이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김관영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이 포럼은 ‘인정과 공감의 민주주의’와 정책 중심의 정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공론장으로, 국정 기획 경험을 가진 대학교수와 지식인들이 참여해 운영하는 상설 포럼이다.

제3차 ‘정책과 대화’ 포럼은 김관영 지사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소준노 우석대 명예교수(선우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선우재는 한국 정치가 적대와 배제의 오래된 분열을 반복하며 국민의 삶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치료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우재 조대영 상임대표(고려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의회, 정당, 이익단체 등이 대화와 합의의 제도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복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하며 대한민국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는 김수환(고려대학교)·한홍열(한양대학교)·김석준(원광보건대학교)·최상한(경상국립대학교)·이영아(전북대학교)·채준호(전북대학교) 교수 등 6명의 패널이 참여해 정치·행정, 산업·경제, 복지, 자치분권·균형발전, 과학·기술, 노동·일자리 등의 분야별로 김관영 지사와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가 주관하는 ‘정책과 대화’ 제3차 포럼이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전복, 신산업 육성·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국가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 중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서 성공적인 역할 해낼 것”

김관영 도지사는 정치·행정을 주제로 한 패널들의 질문에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리적이고 균형있는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고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다자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약자 등 힘 없는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산업·경제를 주제로 한 질문에서 김 지사는 “전복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며, 군산과 새만금, 전주 탄소산단을 연결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RE100 달성을 위한 기업 지원과 산업단지 확장에 힘쓰고 있으며, 전복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분야를 주제로 한 질문에서 김 지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

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처음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봄로봇 등 AI, IoT기반의 실버산업이 중요하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융합단지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고령화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질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중앙정부에 조지과 재정관한 이양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신규 특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있는 특례는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도내 유일 생존애국지사 위문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15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두고 전주보훈요양원을 찾아 생존애국지사를 위문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전주시 완산구 소재 전주보훈요양원(원장 정도일)을 찾아가 전북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응(98)을 위문하고 국경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정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승우 의장은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생때부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이석규 애국지사의 강인한 희생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근간이 되었다”며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자랑스러운 역사가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조례제정 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전주보훈요양원 시설을 둘러보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어르신 등의 재활치료와 심리안정치료도 참관했다.

한편, 순국선열의 날은 국경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열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만호 기자



## 이재명 리더십 타격... 친명 비상, 비명 꿈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 선고에서 예상보다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 체제를 유지해온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동시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대선 비용(약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등 선고... 확정시 피선거권 10년 제한 친명계 “예상 밖 선고” 당혹... 비명계 활동 공간 생길 가능성

게다가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사법리스크는 산적해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건보다 정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위증교사 사건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고,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대복송금 의혹 재판도 남아있다. 비록 1심이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 리더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한 민주당이 당장 급속도로 분열하지는 않겠지만, 속속이던 비명(비이재명)계가 대안 주자를 찾아 구심점을 형성하면서 이 대표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1심 판결과 관련한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대권 출마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물밑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명계 일각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대안 주자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전직 의원은 “민주당이 단기적으로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겠지만 (단결력이)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대안 공세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에 집중하더라도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내부에서도) 다른 수를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단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친다는 태세다.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심 판결에도 이 대표 리더십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내부에서 나온다. 하지만 당황하는 분위기도 워한다. 한 친명계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를 무죄 혹은 벌금형으로 예상했는데 징역형이 나와 충격이 크다”며 “그동안 (이 대표 체제

에) 틈이 없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명계가 활동할 여지가 생겼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법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스

### 국힘 조배숙 의원, 전북 예산 총력... 지자체장들과 ‘윈윈’ 행보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비례,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예결위 심사 마지막날인 지난 14일까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예산 시즌 내내 예결위 회의장과 지자체 면담을 오가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지난 10일부터 전북 지역 지자체장들과 ‘릴레이 예산 면담’을 이어온 조배숙 의원은 10월 28일 최경식 남원시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11월 30일 황인홍 무주군수·우병기 전주시장, △11월 3일 정현을 익산시장, △11월 5일 심민 임실군수·정성주 김제시장, △11월 6일 최영일 순창군수, △11월 12일 전춘성 진안군수를 차례로 만



나 예산안을 협의했다. 특히 야권 자치단체장들이 만나기 힘든 정부 부처 장관과의 협의의 장을 직접 주선하여 성사시키기도 했으며, 실제로 지난 12일 박상우 국토부장관과 심민 임실군수의 면담을 주선해 임실군의 숙원사업을 장관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전북 예산과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 기관장들에게 송곳 질의

를 쏟아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12일 예결위 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및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기관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지를 위해 민주당과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들을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해당 행사에는 송석준(경기 이천시),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상욱(울산 남구갑), 김대식(부산 사상구), 박수민(서울 강남을),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조배숙 의원과 함께 단상에 올라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만호 기자

## 민주 도당 “이재명 1심 실형 선고 유감”

### “민주주의·법치 바로 세우는데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태 국회의원)이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도당은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작과 왜곡을 일삼았고,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태풍력 가족에 대한 비리는 봐주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

찰의 근거 없는 혐의에 비판 없이 동조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치적 판결을 계기로 도민과 함께 김건희·윤석열 특검법과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힘을 결집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능함을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만호 기자

### 익산시의회, 신청사 입주식 내달 19일까지 정례회 진행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지난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신청사 입주식을 갖고 다음달 1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으며, 정현을 시장, 김영석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입주식에 이어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부터 변경된 일정에 따라 2년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장 정반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진규 의원이 최근 익산시 공동주택 공급 물량 급증에 따른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손진영 의원이 인화동 협동조합 오피스텔 건립 지연이 초래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